

朝鮮日報

1999

5

3. 북방정책의 철학과 전략- 모스크바·북경을 거쳐 평양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영종도 국제공항, 경부고속전철도 그 기본구상은 이같은 북방정책을 뿌리로 해서 마련된 것이다. 고속철도의 기본 구상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아니라,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평양-신의주-시베리아-유럽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부산까지 海底(해저)로 와서 우리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가자』고 국회 연설에선가 비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같은 구상을 담고 있다

盧 전 대통령은 『고속전철에 대한 우리의 구상과 기밀을 서방 국가들이 알아채고 고속전철 입찰 경쟁이 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서울-부산 노선만 염두에 두었다면 서방 국가 회사들 입장에

서는 별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

)의 肉聲회고록① 87

집중연재 · 盧泰愚(前 대통령)의 肉聲회고록① 87

月刊 朝鮮 1999年5月号

(連載 盧泰愚前大統領の肉声回顧録)

北方政策の哲学と戦略…モスクワと北京を経て平壤へ

現在、工事が進められている永宗島の国際空港、京釜高速電鉄もその基本構想は北方政策に根ざして準備されたものである。高速鉄道の基本構想はソウルから釜山までではなく、釜山からソウルを経て平壤、瀋義州、シベリア、ヨーロッパまで結ぶというものである。私が日本に行ったと「日本から釜山まで海底トンネルで来て、共に肩をならべて行きましょう」と国会演説でだったか披露したことがあるが、それはまさにこの構想を盛り込んでいる。

盧泰愚前大統領は「高速電鉄についての我々の構想と機密を欧州の国々に開示したので高速電鉄入札競争が激化した」と説明した。単純にソウル～釜山路線だけを念頭に置いたとすれば欧州の国々会社の立場では参入できない事業だったとのことである。